

소외 없는 '보성' 만든다... '복지 600' 실현 가속화

보훈가족 유족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노인일자리 3251명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

보성군이 '복지 600' 실현을 목표로 올 해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복지 600'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군은 5·18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유족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 등 자립을 이르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 자활·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7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아쿠아(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종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로 인상된다. 이로써 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아업에도 148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에도 적극 나선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돼 34만3510원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는 한시적으로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경



복지600 사업 일환으로 운영된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모습.

보성군 제공

로당 1개소당 30만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돕는다. 특히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도 3251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기준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5단계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요금 부담을 줄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34만원으로 상향되고,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으로 인상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소외 없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 행복이 최우선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청춘창고 '창고의 날' 행사 정례화 순천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순천시는 청춘창고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창고의 날' 행사를 정례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춘창고 '창고의 날'은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각종 문화 행사와 입점자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춘창고는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올해 첫 공연은 18일에 개최되며 마술쇼, 샌드아트, 마술교육 체험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선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창고의 날 공연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매출도 올리고, 풍부한 볼거리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청춘창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창고는 상반기 입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입점자 모집공고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순천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61-749-5761)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소설가 한승원' 생가 복원 사업 돌입

부지 매입 완료

장흥군은 지역 대표 문인인 소설가 한승원의 생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생가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재야제바라야제', '불의 딸', '초' 등을 집필한 한승원 작가는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한승원 작가의 딸인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승원 생가를 찾아오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회진면 신상리에 위치한 한승원 생가 소유주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부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한승원 작가의 자문을 받아 올해 생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한승

원, 한강 부녀의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한승원 생가 복원과 함께 이청준 생가 및 한승원 문학 산책로 등과의 연계로 문학 기행 관광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승원 작가는 장흥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한강 작가의 뿌리"라며 "생가를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대표적인 문학 자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는 설을 맞아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어린이 전통문화교실과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다례·다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국내 대표 진달래 군락지, 여수 '영취산' 명칭 통일

"통용성·인지도 등 고려"

여수시는 그동안 '영취산'과 '진례산' 등으로 혼용돼 온 지명을 '영취산'으로 통일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취산 지명은 1961년 국무원 고시로 최초 등록됐으나, 옛 문헌 기록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고시로 2003년 진례산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민과 탐방객 사이에서 '영취산'으로 통용돼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아 명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부터 2회에 걸쳐 여수시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지명위원회에 지명 변경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현지실사와 전문가 면담 등

을 거쳐 지난해 12월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변경안을 심의·의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7일 최종 고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영취산은 대한민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하나로,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관광홍보물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전통문화와 함께 맞이하는 설"

선비문화체험학습관 프로그램

순천시는 설을 맞아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어린이 전통문화교실과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전통문화교실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총 4회 운영된다. 한복 바르게 입기와 생활 예절교육, 다례 및 다식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과 함께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맞이 전통음식 체험은 오는 21일과 23일 총 2회 운영되며, 가족과 함께 전통

한과인 오색 쌀 방울강정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김순옥 식품명인이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선비문화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또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는 3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귀농인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 장성군, 내달 12일까지 접수

장성군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65세(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돼 있고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 전에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신용·담보평가 등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로 확정한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사업시행 지침과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